

전북

전북도, 중소기업인 보호대책 손 놓았나

“SSM 규제 현행법상 불가능” 소극 대처...광주 적극 저지와 대조

‘서민정책’을 민선 5기 원년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전라북도가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화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 앞으로 ‘허가호번인’ 친서민정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유통산업 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성을 위해 ‘광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11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 직불제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도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SSM규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유통법개정안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전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기업 수퍼마켓 입점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인 등 지역사회의 위기를 초조화할 것”이라며 “롯데슈퍼 우아닷컴 개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가 만든 홍삼 초콜릿 맛있어요” 진안군은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부경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홍삼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홍삼을 기미한 초콜릿과 사탕, 젤리, 음료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소하게 느끼던 홍삼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조선왕조 본향’ 전주 위상 알린다

市, 내달 4일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 기념행사

태조 어진(眞御·왕의 초상화)을 모시고자 건립된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기전(慶基殿)이 다음달 4일 창건 600주년을 맞을 때를 맞아 풍성한 기념행사와 함께 태조 어진을 봉안할 어진박물관도 문을 연다.

이곳에는 최근까지 태조 어진의 진본이 모셔졌으며, 경기전내에 있는 어진박물관이 완공되면 국립 전주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진본을 다시 봉안하게 된다. 경기전에 봉안될 태조 어진은 1872년에 그려진 것으로 현재 보물 제931호로 지정돼 있다.

기념대제는 조선시대에 어진을 봉안한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로, 전라 관찰사가 충청관찰사로부터 어진을 넘겨받아 경기전으로 모시는 고유례(御進행렬) 어진 봉안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어진행렬은 태조 어진을 실은 어진가교를 앞세우고 의장대와 취태대, 시민 600명이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경기전까지 2km 구간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전내에 건립된 어진 박물관도 같은날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된다.

“소 싸움 보고 명품 한우 드세요”

정읍시, 4개 가을축제 통합 개최

정읍에서 4개의 가을 축제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함께 개최된다. 정읍시는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정읍지역 대표적인 ‘정읍사문화제’와 ‘정읍 전국민속사씨름대회’, ‘한우축산축제’, ‘내장산국화축제’ 등 4개의 가을축제가 통합개최한다.

여 마리의 우수한 싸움소가 체중에 따라 갑종·을종·병종 3체급으로 나눠 경기를 펼친다. 상금은 우승소에게는 갑종 600만원, 을종 500만원, 병종 4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정읍 한우축산축제’는 정읍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한우고기’의 특별한 맛을 볼 수 있으며 ‘5

회 단풍미인 한우능력 평가대회’도 함께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내장산 국화축제’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쥐라기공원과 곰·나비 등 동물을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해 모두 11만여점의 국화작품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읍지역 대표적 축제로 꼽히는 ‘2010 정읍사문화제’는 30일 정해마을 채수 의례를 시작으로 ▲정읍사 여인제 ▲시민의 날 및 축제 기념식 ▲정읍사야외가게가 열린다. 31일에는 나도(羅道) 문화공연과 정읍사공연, 민속공연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고창 반암마을, 30일 ‘병바위 큰잔치’

“만산홍엽 단풍도 만끽하고 신나는 축제도 즐기세요.”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일대에서 주민들이 마련한 가을축제가 펼쳐진다.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는 30일 반암마을 ‘신선이 놀러온 반암마을 테마공원’ 일대에서 ‘2010 인천강 병바위 큰잔치’를 개최한다.

또한 인천강변에서 바람개비길 걷기를 비롯해 연날리기, 나룻배타기, 달구지 타기, 반암마을 캐리커 포토존 등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반암리마을운영위원회 조차영 사무장은 “신선산 단풍도 볼 겸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반암마을에 들러 마음껏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비리 척결, 갈 길 멀다

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서만 3개 자치단체가 잇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오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지역의 ‘재왕’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견제할 지방의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멸종위기 ‘남방바람꽃’ 복원사업 본격화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식물인 ‘남방바람꽃’ 복원사업이 본격화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동으로 ‘남방바람꽃’ 복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은 이달 초 순창군 회문산 근각지에 대해 생태환경개선 작업을 벌였으며, 인위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

수가 적다. 여러해살이 풀인 ‘남방바람꽃’이 4월에서 6월 사이 말라 없어지는 식물로 식생변화에 민감해 도태되기 쉽고, 인위적인 훼손으로 멸종위기 상태다.



멸종위기 식물인 ‘남방바람꽃’ 복원사업이 본격화됐다.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auction advisory services including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locations.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Brokerag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cluding land and house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Brokerag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cluding land and houses.

대인동삼일부동산 Daein 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cluding land and houses.